



# 동향에 '아삭아삭'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이 있어요

▶ 5일부터 이틀간 동향 체련공원에서



**제** 9회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5일부터 6일까지 진안군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린다. 동향면민의 날과 함께 열리는 진안고원 수박축제는 체육행사, 공연, 전시, 수박·한우 할인 판매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축제 첫째 날 농악대의 공연으로 시작해 오전 11시 기념식이 열린 후 본 행사로 주민자치 공연, 개그맨 만담쇼, 마이골 음악회 특별공연 등이 준비된다.

**공연·수박 판매·체험 등 다채 수박 썰리 등 10가지 음식 시식 민물장어 잡기 행사도 제공**

구리고을 노래잔치에는 효녀 가수 현숙 등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흥을 북돋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은 동향면민의 날을 기념해 투호, 제기차기, 윷놀이 등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4개 분야의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부대행사로 깜짝 수박 경매, 수박 주스 빨리 마시기, 수박 무게 맞추기, 수박 퀴즈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수박과 한우를 무한 할인 판매하는 행사에서는 시세보다 약 1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진안고원 수박과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고품질을 자랑하는 진안고원 수박으로 만든 수박 음식품평회가 전시 부스에서 진행돼 수박 냉면, 수박 썰리, 수박 슬러시, 수박 초코파이 등 10여 가지 음식을 시식할 수 있다. 수박 공예나 수박 사진전, 수박 터널 걷기 등 전시행사도 열린다.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미끄럼틀)를 설치해 아이들의 물놀이도 가능하다. 민물장어 잡기 행사는 휴가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하 진안고원수박축제추진위원장은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수박의 맛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박축제를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진안에서 나는 진안고원 수박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비파과 당도측정기를 갖춘 선별장에서 당도 11Brix 이상 수박만 선별해 전국의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서울 가라시장 등으로 출하된다. \*\*축제문의: 동향면 063-430-8243 /진안=우태만 기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